

자사 펀드의 20% 초과 손실만 적으면 무엇이 빠지나

핵심위험 4개는 최소 공시이고 다른 운용사의 동종상품 손실은 의무 범위 밖에 남는다

금융감독원의 8월 25일 표준안, 5월 태스크포스 자료와 자본시장법상 신고서·투자설명서 구조를 대조해 새 공시가 보여 주는 범위와 빠지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8.27	연번	2026_65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8.27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표준안을 위험의 전부가 아니라 증권신고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하한으로 본다. 자사 동종상품의 20% 초과 손실은 비교 가능한 기록을 늘리지만, 다른 운용사의 사고와 20% 이하 손실은 의무 범위 밖에 남는다. ‘운용경력 없음’은 무사고가 아니라 비교할 자사 이력이 없다는 뜻이므로 판매 화면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9월 30일부터 고위험·오인 가능성이 큰 공모펀드 10개 유형의 신규 출시분은 핵심위험 4개와 자사 동종상품의 20% 초과 손실 이력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용경력이 없다는 표시와 상품이 덜 위험하다는 판단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5일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개정 공시서식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일	2026년 9월 30일	개정 공시서식
대상	공모펀드 10개 유형	대규모 손실·고위험·오인 가능 유형
적용 조건	신규 출시	기존 펀드 갱신 적용은 시행자료 확인 필요
핵심위험	총 4개	원본손실 위험 1개+특수위험 3개
손실 이력	자사 동종상품 20% 초과	펀드명·지역·자산·발생일·규모
기준 성격	기재해야 할 최소 기준	추가 설명은 운용사 내부통제 영역

적용 대상에는 해외 부동산펀드·해외 리츠·ELF·DLF처럼 대규모 손실사례가 있던 유형, 레버리지·인버스처럼 구조상 위험이 큰 유형, 커버드콜·목표전환형·금현물·해외 재간접처럼 오인 가능성이 큰 유형이 포함됩니다.

신규 펀드는 원본손실 위험 하나와 상품별 특수위험 세 개를 명료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자사 동종상품에서 과거 손실률이 20%를 넘긴 사례가 있으면 펀드명, 투자지역·자산명, 손실발생일과 규모 등을 적습니다.

5월 태스크포스 출범 전 실시한 일반소비자 119명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70.6%가 투자설명서를 읽은 경험이 없고 49.6%가 기존 설명서가 위험 이해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새 표준안은 긴 문서 안에서 핵심정보를 앞쪽에 모으는 조치입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자본시장법상 공모를 하려는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합투자증권이면 투자설명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함께 제공합니다. 투자설명서는 신고서와 다른 내용을 적거나 신고서의 내용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신고서 서식을 바꾸면 판매 단계에서 받는 설명서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번 표준안은 법률의 손해배상 기준을 바꾸는 조치가 아니라 공시서식의 최소 기재항목을 정하는 조치입니다. 반드시 적을 네 가지 위험과 자사 손실 이력은 감독당국이 정하고, 그 밖의 비교정보를 더 적을지는 운용사가 결정합니다.

손실 이력은 펀드 유형 전체가 아니라 '자사 동종상품'으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새 유형을 처음 운용하는 회사는 비교할 자사 이력이 없습니다. 그때 표시되는 운용경력 없음은 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아니라 표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20%는 손실 가능성을 보장하는 선이 아닙니다. 19% 손실은 공시 의무 기준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20%를 넘긴 사례가 없더라도 미래 손실이 20% 아래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시행일 이후 대상 유형의 신규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은 네 개로 압축된 위험과 자사 손실 이력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다른 회사 손실은 각 회사 신고서를 따로 찾아야 합니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펀드에서 기초자산이 하루 30% 하락하면 상품 손실이 60%에 이를 수 있다는 예시가 제시됐습니다. 1,000만원 투자 가정이면 하루 뒤 400만원이 남는 계산입니다. 이는 극단 상황의 산술 예시이지 실제 손실 예측이 아닙니다.

기존 가입자는 자기 펀드의 갱신 투자설명서에 새 서식이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문은 신규 출시를 명시하지만 기존 설정 펀드의 갱신본 적용범위는 시행일 이후 실제 제출 문서와 추가 안내를 봐야 합니다.

가정 투자금	1,000만원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기초자산 하루 하락	30%	가격제한폭 가정
상품 손실 잔액	60%·400만원	1,000만원×(1-0.60)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다른 운용사의 손실

의무 범위가 자사 동종상품이므로 유형 전체의 손실 분포를 한 문서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02 · 20% 이하 이력

손실이 있었지만 20%를 넘지 않은 경우 무엇을 표시할지 공개 요약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03 · 기존 펀드 갱신본

시행 전 설정된 펀드의 정기 갱신 투자설명서에 새 서식을 적용하는지 시행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04 · 운용경력 없음의 오인

비교 이력이 없다는 표시가 무사고나 저위험으로 읽히지 않도록 별도 설명 문구가 필요합니다.

05 · 지금 할 일**지금 할 일****국민**

-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펀드명으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찾아 핵심위험 네 개를 확인합니다.
- 운용경력 없음은 손실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같은 유형의 다른 운용사 문서도 비교합니다.
- 이미 가입한 펀드는 9월 30일 이후 올라오는 갱신 투자설명서의 작성일과 새 위험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상회사

- 최소 기준 외에도 업계 동종상품의 대표 손실사례와 운용경력 없음의 의미를 판매 화면에 설명합니다.
- 상품별 특수위험 세 개를 고른 근거와 제외한 위험을 내부 심의기록에 남깁니다.

당국

- 자사 밖 동종상품 손실을 유형 단위 통계로 제공하고 20% 이하 손실의 표시원칙을 정합니다.
- 기존 펀드 갱신 투자설명서의 적용 여부와 운용경력 없음의 표준 설명문구를 시행 전에 안내합니다.

갈림길**최소 공시가 유형 전체의 비교로 이어지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기존 펀드 갱신 적용, 유형 단위 손실통계, 운용경력 없음의 설명문구

A

유형 단위 비교가 붙는다
자사 이력과 함께 업계 손실 분포를 볼 수 있어 운용경력 없음과 저위험을 혼동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B

자사 문서만 남는다
투자자는 운용사별 신고서를 직접 모아야 하고, 손실 이력이 없는 회사와 이력이 없는 회사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9월 30일 이후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되는 신규·갱신 간이투자설명서와 금융감독원의 시행 안내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3개의 연결 지식**

금융제도 설명의무 ↗

금융제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넥서스 브리프 기초자산이 제자리로 돌아와도 왜 원금이 줄어드나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6건

01	1차 · 10개 유형·핵심위험 4개·자사 동종상품 20% 초과 손실 이력·9월 30일 시행 금융감독원 2026년 8월 25일 보도자료(KDI 원문 전재) · 확인 2026-08-27 · 확인 2026-08-27 원문 열기 ↗
02	1차 · 일반소비자 119명 블라인드 테스트와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 절차 금융감독원 2026년 5월 12일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TF 자료 · 확인 2026-08-27 · 확인 2026-08-27 원문 열기 ↗
03	1차 · 증권신고서 제출과 수리 전 모집·매출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확인 2026-08-27 · 확인 2026-08-27 원문 열기 ↗
04	1차 ·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제출, 신고서와의 내용 일치와 갱신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 확인 2026-08-27 · 확인 2026-08-27 원문 열기 ↗
05	2차 · 표준안은 증권신고서 최소 기준이며 운용사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금융감독원 설명 이데일리 2026년 8월 25일 보도 · 확인 2026-08-27 · 확인 2026-08-27 원문 열기 ↗
06	파생 · 기초자산 30% 하락·2배 상품 손실 60% 가정에서 1,000만원 잔액 400만원 $1,000만원 \times (1 - 0.60) = 400만원$. 상품 구조를 단순 적용한 예시 · 확인 2026-08-27

추적 예정	신규 출시분과 기존 펀드 갱신분을 나누어 새 위험표 반영률, 운용경력 없음 표시, 자사 밖 손실사례 추가 공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정정 없음.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개별 운용사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특정 펀드의 가입·환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